

안녕하십니까? 미한국상공회의소(KOCHAM) 사무국입니다.

아래 경제 기사 참고하시길 바랍니다.

미 기존 주택 판매 크게 줄어: 미국 기존 주택 판매가 1월에 2년 넘게 가장 낮은 수준으로 줄었습니다. 재고 감소로 주택 가격이 상승하면서 판매에 영향을 미쳤습니다. 1월 주택 판매는 전월 대비 8.4% 하락한 연율 391만 채로, 2023년 12월 이후 최저치로 나타났습니다.

[미국 경제]

- CNBC: 1월 미 일자리 발표, 핵심 내용은?
- WSJ: 헬스케어 일자리가 미 노동 성장 핵심
- Bloomberg: 2024년 이후 처음으로 미 제조 일자리 늘어
- Bloomberg: 미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, 흑한 이후 감소

[트럼프 행정부]

- Bloomberg; 트럼프, 의회의 캐나다 관세 종료 법안 통과 비난

[무역전쟁]

- Bloomberg: 캐나다 은행 “미 정책이 불확실 초래” 비판

[에너지]

- CNBC: 겨울 난방비 부담...11% 상승 예상

[비즈니스와 기업동향]

- YahooFinance: 중국 1월 스마트폰 판매량 감소
- WSJ: 맥도날드, 가치 마케팅 효과 거두고 있어

[미국 경제]

CNBC: Here are the five key takeaways from the January jobs report
1월 미 일자리 발표, 핵심 내용은?

- 이번 주 발표된 미 비농업 부문 고용은 13만 명 증가했고, 실업률은 0.1% 하락한 4.3%였다. 당초 다우존스의 예상치는 5만 5천 명 증가에 실업률은 4.4% 였었다.
- 임금도 상승해 12월에 비해 0.4% 상승하고 연간으로는 3.7% 올랐다. 근로 생산성을 보여주는 주간 근무시간은 0.1 시간 줄어든 주당 34.3시간이었다.
- 작년과 재작년은 고용 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. 고용 수정치에 따르면, 2024년 4월~2025년 3월 기간의 고용 증가 규모는 처음 발표보다 89만 8천 명 적었습니다. 또한 11월 수치는 1만 5천 명, 12월은 2천 명 하향 조정됐다.
- 한편 의료 관련 분야, 사회복지, 그리고 건축 등에서 일자리가 많았다. 건축 분야 일자리는 3만3천개 늘었다.

기사

WSJ: Healthcare Jobs Have Become the Engine of America's Labor Market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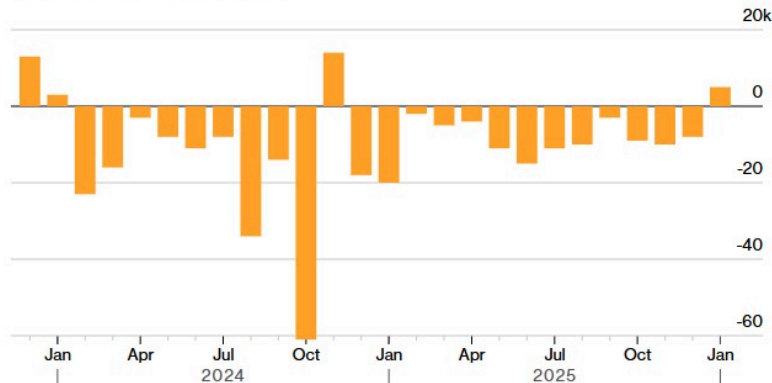
헬스케어 일자리가 미 노동 성장 핵심

- 1월에 늘어난 13만 개의 신규 일자리 중 거의 대부분이 헬스케어 분야에서 생겼는데, 이는 노동시장의 뚜렷한 변화를 보여준다.
- 미국의 고령화로 의료 인력 수요가 강하게 계속되면서 높은 임금과 고용 안정성이 보장된다. 반면에, 다른 산업 부문에서는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다.
- 전문가들은 헬스케어 산업이 다른 산업보다 성과가 좋은 데다 관련 일자리도 미 전역에 고르게 퍼져있으며 경제 상황에 관련없이 비교적 안정적인 일자리라고 진단했다.

US Manufacturers Add Jobs for First Time Since Late 2024

Unexpected January advance was modest but a green shoot for struggling sector

Change in manufacturing payrolls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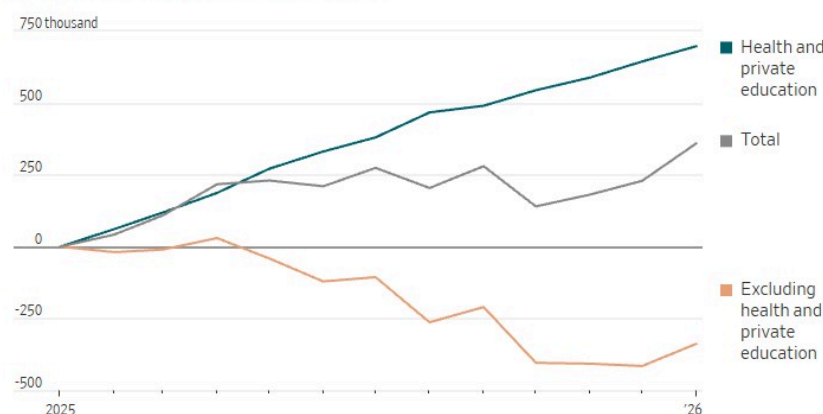
Source: Bureau of Labor Statistics

기사

Bloomberg: First Factory Jobs Gain Since 2024 Offers Hope of Recovery 2024년 이후 처음으로 미 제조 일자리 늘어

- 미 제조업 고용이 2024년 말 이후 처음으로 증가해, 장기간 침체에서 벗어나기 시작할 신호를 보여주고 있다.
- 1월 제조업 고용은 5천 명 늘었으며, 이는 내구재 및 장비 생산업체의 고용 증가에 덕분이었다.
- 공장 고용 증가세가 이어진다면, 탄탄한 경제 활동과 무역 정책 불확실성이 완화되는 상황에서 제조업 전망에 긍정적인 신호가 될 것으로 보인다.

Change in nonfarm payrolls since January 2025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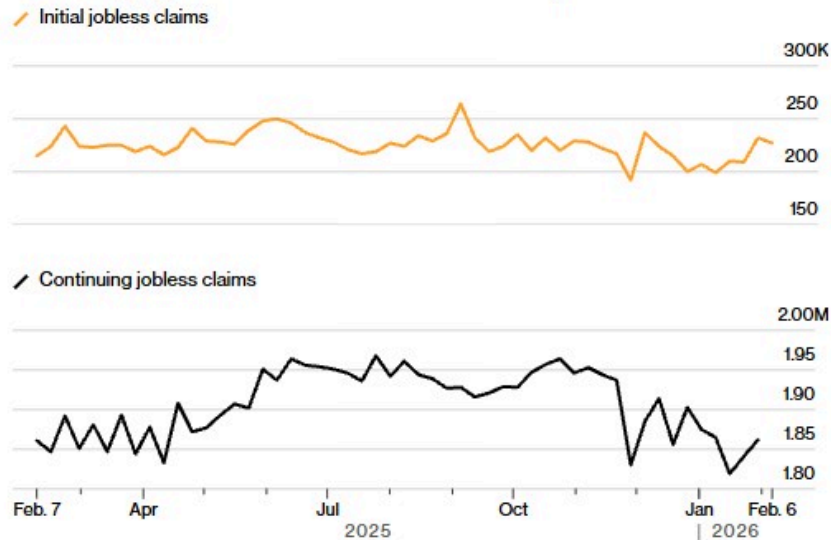
Note: Seasonally adjusted
Source: Labor Department

Bloomberg: US Jobless Claims Settle Back After Severe Winter Weather 미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, 혹한 이후 감소

- 극심한 최근 혹한이 한층 꺾이면서 지난주 미 신규 실업 수당 청구건수가 줄어들었다.
- 지난 2월 7일 끝나는 주간에는 5천 건 줄어든 22만 7천 건이라고 연방 노동국은 오늘 목요일 발표했다.
- 이는 극심한 혹한 이후에 비즈니스와 학교가 다시 문을 열었다는 것으로 의미한다.
- 한편 지속적으로 실업수당을 받는 전체 숫자는 1백86만건으로 상승했다.

US Initial Jobless Claims Edge Down After Winter Storm

Continuing applications rose to 1.86 million in the previous week



Source: US Department of Labor

[트럼프 행정부]

Bloomberg: Trump Rebuked Over Canada Tariffs as Midterm Anxieties Grow

트럼프, 의회의 캐나다 관세 종료 법안 통과 비난

- 공화당이 다수인데도 불구하고 미국 하원은 대통령의 캐나다산 수입품 관세를 종료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. 공화당 일부 의원도 이 법안 통과를 찬성하는 표를 던졌다. 이는 트럼프의 주요 경제정책을 변경하라는 정치적 압력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.
- 즉, 이번 표결은, 다가오는 선거에서 물가 부담이 큰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백악관 경제 정책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을 시사한다. 민주당은 관세를 유지하려는 공화당 의원들을 비난하며, 공화당이 생활비 상승을 초래하는 정책을 지지한다고 비판했다.
- 물론 트럼프는 자신의 관세 정책 폐지를 요구하는 법안을 거부할 가능성이 거의 확실하지만, 6명의 공화당 이탈표가 나왔다. 근소한 차이로 공화

당이 우위를 보이고 있는 하원의 이 같은 상황으로 트럼프의 입지가 약해질 수 있다

기사

[무역 전쟁]

Bloomberg: Bank of Canada Blames US Policy for 'Resurgence in Uncertainty

캐나다 은행 “미 정책이 불확실 초래” 비판

- 캐나다 중앙은행 금융정책 위원회는 최근 미국의 조치가 세계를 “더 불안정하게” 만들고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고 밝혔다.
- 위원회는 미국의 무역정책과 연방준비제도 독립성 위협을 불안 요인으로 지적하면서, 이에 따라 정책금리의 다음 조정 시점과 방향을 예측하기 어렵다고 밝혔다.
- 또한 미국이 미국·캐나다·멕시코 자유무역협정(USMCA)을 앞으로 다시 검토하는 것은 “중대한 위협”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, “기업들의 자본 투자를 주저하게 만들고 인플레이션을 높일 가능성이 있다”라고 평가했다.

기사

[에너지]

CNBC: Home heating bills are soaring as temperatures plunge. It's yet another rising cost for Americans

겨울 난방비 부담...11% 상승 예상

- 천연가스, 전기, 난방유 가격 상승과 지속적인 한파로 많은 미국 가계의 지출 부담이 늘어나고 있다.
- 이번 겨울(11월~3월) 난방비는 전년 대비 평균 11%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며, 전기·가스·난방유·프로판 사용 가구 모두 비용이 큰 폭으로 오를 것으로 보인다.
- 전기와 천연가스 가격은 향후 수년간 추가 상승 가능성이 있으며, 노후 인프라와 수출 증가 등이 원인으로 꼽힌다.
- 난방비 부담 증가로 이미 6가구 중 1가구가 체납 상태이며, 겨울 정전·단수 납부 유예가 끝나면 많은 가구가 단전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.

기사

[비즈니스와 기업동향]

YahooFinance: China's January smartphone sales down 23% Y/Y, says Counterpoint

중국 1월 스마트폰 판매량 감소

- 중국의 1월 스마트폰 판매량은 전년 대비 23% 하락했다.
- 중국 국내 브랜드들은 1월에 대부분 두 자릿수 판매량 감소를 기록했다.
- 화웨이의 경우 판매량이 전년 대비 27%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선두를 유지했다.
- 샤오미는 전년 대비 36% 하락하며 가장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다.

- 한편, 애플은 전년 대비 8% 증가하며 유일하게 성장세를 기록한 브랜드였다.

기사

WSJ: McDonald's Says Its Value Campaign Is Paying Off 맥도날드, "가치 마케팅 효과 거두고 있어"

- 맥도날드는 수십 년간 노력해 온 가격 인하 노력이 결실을 보고 있다고 밝혔다.
- 회사는 지난 4분기 동일 점포 매출이 5.7% 상승했으며 총 매출도 예상치를 웃돌았다고 밝혔다.
- 맥도날드 CEO는 가격 인하와 할인 프로모션이 더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도록 유도하고 브랜드 이미지를 개선하는데 기여했다고 평가했다.
- 맥도날드는 2024년부터 \$5 세트 메뉴를 제공하기 시작했으며 미국 가맹점주들과 협력해 콤보 메뉴 가격 인하를 추진해왔다.
- 한편 회사는 올해 에너지 드링크 등 새로운 메뉴 개발, 신규 레스토랑 개발 등 투자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.

기사

KOCHAM | 445 Park Ave | New York, NY 10022 US

[Unsubscribe](#) | [Constant Contact Data Notice](#)